

# 장거리 출퇴근 교직원에 전월세 보증금 지원한다

전북자치도교육청, 내년부터 '공무원 주택임차지원기금' 지원 나서  
1인당 최대 5000만원 지원... 공무원 주거 안정·교육경쟁력 강화 도모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순환보직으로 장거리 출퇴근을 하는 교직원의 주거 여건 개선을 위해 내년부터 '공무원 주택임차지원기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는 공무원 주택임차비 지원은 출퇴근이 힘든 곳으로 인사 발령이 난 공무원이 관사 부족으로 입주하지 못할 경우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전·월세 보증금 일부를 대여해주는 제도다.

17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근무지 소재 지역 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공무원이 해당 지역에 주택을 임차하

고 주민등록을 이전해 실제 거주하고 있으면서 재정보조보험 가입을 완료한 교직원을 대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금액은 최대 5,000만원이며, 2년간 지원에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앞서 전북교육청은 지난 7월 '공무원 주택임차지원기금 지원 계획'을 수립했다. 9월에는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전담대 의원 발의로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청 공무원주택임차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제정돼 기금 설치의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이에 따라 전북교육청에서 제출한

기금 운용계획안과 2025년 본예산안의 도의회를 통과해 내년부터 관사 입주 대기자 190여명에게 1인당 최대 5000만원씩 총 97억원을 지원한다.

한편 전북교육청은 2029년까지 총 178억5,000만원의 기금을 조성해 주택 임차비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서거석 교육감은 "전북교육청은 장거리 출퇴근 공무원들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이를 통해 사기 진작은 물론 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전북교육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 친환경 에너지·차세대 디스플레이 연구 '주목'

전북대 라용호 교수 연구팀 박사과정생들, 연구 성과 발표  
오정균씨, 그린수소 생산·이산화탄소 저감기술 개발  
김성운씨, 차세대 디스플레이 초소형 마이크로 LED 개발

전북대학교 라용호 교수 연구팀 박사과정생들이 친환경 그린수소 생산 및 이산화탄소 저감 기술과 차세대 디스플레이 기술 개발 등 미래 핵심 분야에서 우수한 연구 성과를 세계적 학술지에 잇따라 발표하며 학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에 따르면 오정균 박사과정생은 재생에너지를 활용해 수소를 생산하고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연구를 통해 Nano-Micro Letters(IF=31.6) 최신호에 논문을 게재했다.

논문 제목은 'Solar-Driven Sustainability: III-V Semiconductor for



라용호 교수



오정균 박사과정



김성운 박사과정

Green Energy Production Technologies'를 활용해 수소를 더 효율적으로 생산하고,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는 방법을 제안했다.

특히, 나노 크기의 구조를 이용해 효율성과 안정성을 크게 높일 수 있음을 보여주며 지속 가능한 에너지 기술의 가능성을 제시했다.

또한, 김성운 박사과정생은 가상현

실(VR)과 증강현실(AR) 같은 차세대 디스플레이 기술에 사용되는 마이크로 LED(μLED) 연구로 'National Science Review(IF=16.3)' 최신호에 논문을 발표했다.

논문 제목은 'Scalable InGaN nanowire μLEDs: paving the way for next-generation display technology'로, 디스플레이의 색상 효율을 높이는 데 중요한 초소형 LED 기술을 개발했다.

이 기술은 정밀한 나노 공정을 통해 디스플레이 분야의 난제인 녹색, 적색 LED 효율을 향상시켜 더 밝고 선명한 색상을 구현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VR/AR 등 미래형 디스플레이 기술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들을 지도한 라용호 교수(신소재공학부 정보소재공학전공)는 "이번 연구는 친환경 에너지와 차세대 디스플레이 관련 개발 등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며 "이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에너지와 디스플레이 기술 혁신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17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5층 회의실에서 '2024년 교육기부 유공자 표창 수여식'이 열린 가운데, 서거석 교육감과 유공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올해 도내 교육기부 유공자는 누구?

전북교육청, 표창 수여식 열고 총 14팀 선정·표창  
개인부문 - 이미지 등 2명·교직원 - 문화정 등 3명  
유학생 - 리마 등 3명·단체 - 초록우산 전북본부 등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17일 5층 회의실에서 '2024년 교육기부 유공자 표창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올해 교육기부 유공자는 재능, 봉사, 자원, 콘텐츠 기부 등 교육 기부 활동을 펼쳐 온 개인, 유학생, 교직원, 단체를 추천받아 심의위원회를 거쳐 총 14팀을 선정했다.

개인부문은 학생자원봉사 참여 활성화를 위해 노력한 이미지씨(전 장수군 자원봉사센터장)와 퇴직교사로 2020년

부터 교육기부단에 참여해 창의과학 수업을 해온 이오재씨가 선정됐다.

교직원부문에서는 △임시 진로상담을 진행해 온 미래교육연구원 노성 연구위원 △학생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자원을 한 전주이중중 문화정 교육복지사 △학생의 자기주도성을 높이는 데 기여한 덕양정보고 박정수 교사가 수상했다.

유학생은 아르메니아 국적의 타테버 시안 리마, 몽골 국적의 토토바야 이무진, 태국 국적의 신타리터 웅 수파

나 3명이 선정됐다. 이들은 재능기부를 통해 전북의 학생들에게 출신국 문화를 소개하고, 다문화 감수성 향상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끝으로 전주한일고가 23년간 교직원과 재학생이 꾸준히 연탄봉사를 하며 아름다운 나눔을 실천한 학교로 선정됐고, 교육의 공공성을 실현해 온 K-water 삼진강변지사, 밝은세상연합회, 초록우산 전북본부, 신지식장학회, 굿윌센터가 단체부문을 수상했다.

서거석 교육감은 "교육기부는 단순한 나눔을 넘어 우리 사회가 함께 성장하는 밑거름"이라며 "앞으로도 전북교육청은 지역사회가 교육지원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해 학생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교육청, 올 자율형 공립고 2.0 지정고 운영 결과보고회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17일 전주 왕의지빌 세미나실에서 '2024 자율형 공립고 2.0 지정고 운영 결과보고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먼저, 올해 지정된 8개교 중 2024년 하반기부터 운영해 온 양현고, 전주고, 전주술내고, 전주여고, 진안제일고 등 5개교의 운영 성과를 발표했다.

양현고는 지역 대학과 연구기관 등과 연계한 진로 탐색 프로그램 운영을, 전주여고는 대학 실험실 프로젝트 결과를 대표적 성과로 제출했다.

이어 2025년부터 운영 예정인 군산동고, 김제여고, 순창제일고 등 3개교 향후 계획을 공유했다.

군산동고는 에너지 신산업 인재 양성을, 김제여고는 실업·연구중심의 종자생명분야 교육과정 운영을, 순창제일고는 발표 바이오 및 농생명 산업 지역인재 양성 계획을 밝혔다.

/장은성 기자

## 소규모 초등 졸업앨범 제작 지원 검토

전북교육청, 앨범업체 대표들과 간담회 개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17일 창조나래 5회의실에서 '소규모 초등학교 졸업앨범 공동제작을 위한 앨범업체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학생 수가 적어 졸업앨범 제작에 어려움이 있는 소규모 초등학교의 졸업앨범 공동제작 방안을 마련을 위한 업체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르면 2024년 4월 1일 기준 도내 전교생 60명 이하의 소규모 초등학교는 208개로 전체 초등학교의 50.4%에 해당한다. 소규모 초등학교는 졸업생 수가 적어 일반 학교보다 높은 가격에 앨범을 제작하거나 일부 학교는 아예 제작을 못하고 있다.

이에 전북교육청은 학교별 학사 일정 및 앨범 규격 등 상이한 졸업앨범 특성을 고려해 효율적인 공동제작 추진 방안 마련에 나선 것.

특히 앨범 공동제작에 많은 학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이를 통해 학교와 지역 앨범업체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소규모 초등학교 졸업앨범 공동제작은 2025학년도 초등학교 졸업생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노경숙 학교안전과장은 "졸업앨범은 친구와의 소중한 학창 시절을 평생 기념할 수 있는 공동의 학습결과물"이라며 "졸업앨범 공동제작을 통해 학생들에게 양질의 졸업앨범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 산학 연계형 교육프로그램 본격

JBNU-KIST 산학연융합학과, 전북형 워털루 코업 프로그램 시행

전북대학교와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이하 KIST)이 국립대 최초로 도입한 학연교수제를 통해 설립된 JBNU-KIST 산학연융합학과(학과장 이승희)가 전북의 강소기업인 비나텍(대표 성도경)과 산학 연계형 교육 프로그램을 본격 시행한다.

17일 전북대에 따르면 JBNU-KIST 산학연융합학과는 기업과 산학 연계 교육을 실시하는 이른바 '전북형 워털루 코업(Co-Operative Education) 프로그램'을 시행하기로 했다.

워털루형 코업 프로그램은 캐나다 워털루 대학의 실무인재 양성 프로그램을 지역 실정에 맞게 재설계한 현장 실습 지원 사업으로, 부산시가 올해부터 시작했다. 학기 중엔 대학에서 이론수업을, 방학 중엔 기업에서 현장 실습에 참여하며 전공 지식과 실무 역량을 동시에 키우는 실무형 인재양성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의 첫 참여기업은 전북에서 친환경 제품인 슈퍼캐패시터와 연료전지 소재를 연구·개발 및 생산하는 지역 대표기업 비나텍(주)이다.

프로그램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 JBNU-KIST 산학연융합학과와 비나텍(주)(S/C R&D 부문장 김진성 전무)은 최근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전북대는 대학원생들에게 전북 기업의 현장실습의 경험과 취



업의 기회를 제공하고, 비나텍(주)에서는 신규수 습득과 기업 현장 실무 역량 함양, 그리고 취업 연계까지 지원한다.

이 프로그램을 주도하고 있는 이승희 교수(고분자나노공학과)는 "이번 프로그램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하는 대학-출연원 간 장벽 허물기 정책의 중요한 트랙으로, 학연교수를 통해 양성된 맞춤형 인재들이 지역 기업으로 유입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산학연 협력의 모범 사례가 될 뿐만 아니라, 대학원생들의 취업을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 프로그램에 참여를 희망하는 대학원생은 JBNU-KIST 산학연융합학과 메일(jbnukist@jbn.ac.kr)을 통해 문의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호원대, 백인백색 HOPE 장학금·호원 인증서 수여식

호원대학교 진로·취업지원실은 17일 총장실에서 '百人百色 HOPE 장학금 및 HOWON 인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행사는 현대사회가 요구하는 경쟁력 있는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학생들이 교내외에서 쌓은 취업역량 및 경력개발 실적에 따라 인증서와 장학금을 수여하는 자리다.

이에 따르면 '百人百色 HOPE 장학금'은 147명의 학생에게 총 3,250만 원 규모로 지급됐다. 이 중 상위 10%에 해당하는 14명은 추가로 280만 원과 함께 'HOWON 인증서'를 받았다.

/장은성 기자



우석대-중국 남경공정대 국제교류협약 체결

우석대학교(총장 박노준)는 17일 대학 본관 2층 총장 집무실에서 중국 남경공정대학교와 국제교류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 체결식에는 박노준 총장과 순이우 중국 남경공정대학교 당 서기를 비롯해 양 대학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했다.

이에 따라 양 대학은 △학술교류협력력을 강화하기 위한 공동연구 및 세미나 개최 △학생 및 교수 교류 △인재 양성 프로그램 개발 △학과 간 교류 및 협력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장은성 기자

## 'AI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상용화 박차

전주대 지기술지주회사 자회사 '아이트' 디지털 포용 제품·서비스 실증지원사업 선정

전주대학교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인 (주)아이트(대표 우명제)가 2024년 디지털포용 제품·서비스 실증지원사업에 선정, 'AI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상용화'에 박차를 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AI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는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사회적 약자도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주)아이트는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슬로건을 바탕으로 AI 카메라 모듈 기술을 핵심으로 키오스크 제품을 개발했다. 이에 지난 9월 대구에서 열린 '2024 지역 경제 혁신박람회'와 10월 서울에서 열린 '스마트라이프 워크'에서 제품을 공개하며 큰 관심을 받았다.

이번 사업을 주관한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이하 NIA)의 디지털포용 제품·서비스 실증지원 사업은 국내 정보격차 해소를 목표로 고비용·고수입 의존도가 높은 디지털 포용 제품의 품질 검증 및 신뢰성을 확보해 조



기 상용화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주)아이트는 이번 프로젝트의 성공적 개발과 박람회 참여를 계기로 키오스크 제품의 고도화에 집중해 다양한 상용화 모델로 확장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특히, 정확성과 접근성이 높은 AI 기술을 바탕으로, 다양한 산업군에 적용 가능한 키오스크 모델을 개발해 시장 경쟁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장은성 기자

전주기전대, 내년 대학교 국제개발협력 이해증진 선정

전주기전대학(총장 조희천)은 처음으로 '2025년 대학교 국제개발협력 이해증진사업'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KOICA와 ODA교육원이 주관하는 이 사업은 대학생의 국제개발협력 및 ODA에 대한 이해증진, 국제개발협력 분야 진로 탐색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5년 2월부터 2026년 2월까지 13개월동안 운영된다.

/장은성 기자